



KYUSHU NATIONAL MUSEUM 2024
바닷길 그리고 아시아로 통하는 길
OCEAN WAYS, ASIAN PATHS



시민과 공생하는 박물관을

인사말

규슈국립박물관장 도미타 준



규슈국립박물관은 일본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와의 교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컨셉으로
 옛부터 외교의 요충지였던 후쿠오카, 다자이후에서 2005년 개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재지인
 다자이후를 비롯해 많은 여러분들이 따뜻한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1,8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2025년에 개관 20주년을 맞습니다. 일본이 대외교류를 통해 키워 온 역사의
 드라마를 더듬어 찾아가는 '시간의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선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와 박물관을 둘러싼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선인에게서 이어받은
 귀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그 매력을 알리는 박물관의 사명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박물관을 지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표로

■ 규슈국립박물관의 콘셉트

일본문화의 형성을 아시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다

규슈국립박물관은 1994년 6월 문화청이 설치한 <신구상 박물관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가 발표한 다음의 기본 구상을 반영하여 콘셉트를 정하였습니다.

Concept 1

일본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 아시아 각 지역과의 문화교류의 역사를 전국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박물관

Concept 2

고고자료, 역사자료, 미술자료, 민속자료, 민족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수집·보존, 전시, 조사·연구 및 교육보급·평생 학습 활동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박물관

Concept 3

박물관의 전체적인 활동이 국제화, 정보화, 학제화되어 그 성과가 전시와 교육보급 및 평생 학습 활동에 항상 반영되는 '살아 있는' 박물관

Concept 4

국가, 박물관이 설립된 지역이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에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과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박물관

● 규슈국립박물관의 획기적인 사업운영

국가(독립행정법인)와 후쿠오카현이 연계 및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사업운영의 연계협력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립 아시아문화교류센터
----	-------------------	---------------	-------	---------------------

📍 시설소개: 각 층 구성

4F

문화교류전시실

<바닷길 그리고 아시아로 통하는 길>
면적 약 3,900㎡, 천장 높이 7m
의 검은톤 전시실. 기본전시실
및 11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었습
니다.



P5

3F

특별전시실

면적 약 1,500㎡, 천장 높이 7m
의 목조톤 전시실. 대·중·소 세
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었습니다.



P9

2F

수장고

건물 중심에 위치한 수장고에서
귀중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
니다.



P19

보존 수복 시설

총 여섯 개의 보존 수복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
여러분들께는 '백야드 투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P21

1F

엔트런스홀

종합 안내소와 카페를 설치했습니다.
관외에는 수양벚나무의 군생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산책로와 연못, 정자, 다실이 있습니다.



연수실 A, B



일본식 방(연수실C)



오픈 카페
천장에는 규슈 각지의
간벌재를 사용

다실



큰 방 다실 '호만테이'



작은 방 다실 '깃초안'

P23

다실

못

운해(雲海) 벚나무
(수양벚나무의 군생)

정자

산책로

무지개 터널
◀다자이후 덴만구 신사

레스토랑

일본식 방
(연수실C)
연수실
A, B

카페

출입구

P23

휴게소 수유실 물품 보관소 구호실 남자 화장실



부관장
야마다 신고

규슈국립박물관은 주위의 산줄기와 조화를 이룬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 외관이 특징입니다.

각 층은 전시실과 홀, 카페,숍, 연수실, 수장고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주변에는 건설 전부터 있었던 자연이 잘 보존되어 사계절의 서로 다른 표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축 개요

사업 주체: 문화청, 후쿠오카현, (재) 규슈국립박물관설치촉진재단
설계 감리: 기쿠타케·구메(菊竹・久米)설계공동체
설계 기간: 1999년 9월~2001년 3월
시공 기간: 2002년 3월~2004년 3월

○규모

동서160m×남북80m 지하2층·지상5층
최고 높이: 36.1m 처마높이: 35.0m
연면적: 30,675m² 건축면적: 14,623m²
부지면적: 159,844m²
구조: 철골 축력 아치형구조(지붕)/S구조·SRC구조(지하부)/
일부 면진 구조(박물관 기능부)

1층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홀과 아시아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이 까지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뮤지엄 홀

강연회나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여 시설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료)



P23

아지파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나라들의 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실입니다.



P13

문화상품점

오리지널 상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23

CONTENTS

문화교류전	5
특별전	9
교육보급활동·자원봉사	13
조사·연구 활동	15
국제교류	17
다채로운 행사	18
보관·수집	19
수복 기술	21
면진구조	22
시설 이용 안내 / 회원 제도·출판물	23
시설 정보 / 조직·연혁	25

(직원 전용)



제1주차장(남쪽) P

문화교류전 <바닷길 그리고 아시아로 통하는 길>



차분한 분위기의 전시실이 작품의 매력을 이끌어내는 '문화교류전시실'

올 때마다 새로운 만

<바닷길 그리고 아시아로 통하는 길>을 테마로 한 전시를 통해 일본이 아시아, 유럽과의 교류 속에서 키워 온 역사의 드라마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규슈는 대륙과 반도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 예로부터 교류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곳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일본문화의 형성을 아시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다'를 콘셉트로 문화교류전시실(상설전/ 바닥면적 약 3,900㎡)을 통해 일본과 아시아의 문화교류 역사를 소개합니다.

전시는 구석기시대부터 근세 말기(개국)까지를 5가지 테마로 나눠 소개합니다. 각 시대의 문화교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본 전시실'과 더욱더 깊이 있는 테마에 초점을 맞춘 11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주 일부 전시 케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교체를 통해 항상 신선한 전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현 문화재(복원 모조) 및 생동감 있는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 넘치는 전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전시실은 사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일부 전시품 제외)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사진에 담아 SNS에 올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칼럼 | 테마 컬러로 더 알기 쉽게!



학예부 기획과장
이토 신지

문화교류전시실의 5개 테마에 각 테마 컬러를 설정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의 설명 카드에 컬러 바를 붙임으로써 어떤 테마의 작품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의 설명 카드에 컬러 바를 붙였습니다.

5개의 기본전시실

1 조몬인, 바다로 (3만 5,000년 전~기원전 4세기)

빙하기였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대형 동물을 사냥하였고 식물을 채집하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다. 조몬 시대에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숲에 많은 나무 열매가 열렸고 소형 동물이 등장했으며 바다는 풍부한 어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였고 정착 생활을 하였다. 또한, 치장을 하거나 기도를 올리고 장례도 지냈다. 연어 등 식량이 풍부한 일본 동부 지역에서는 특히 성숙된 문화가 꽃 피었다.

2 쌀을 만난 사람들, 왕이 된 사람들 (기원전 4세기~기원후 7세기)

야요이 시대, 대륙에서 쌀농사와 금속기가 규슈로 전해졌다. 공동 작업으로 농사를 짓는 가운데 사람들을 통솔하는 수장이 나타났고, 그는 마침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고훈 시대에는 열도의 대부분을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였다. 대륙에서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왔고 습마 문화와 스에키의 제작 기술이 전해졌다. 규슈에서는 돌로 만든 인물상인 석인과 장식 벽화를 통해 수장의 사후 평안을 기원하는 독자적인 고분 문화가 전개되었다.

3 울렁 국가를 향한 발돋움 (7세기~12세기)

나라 시대의 일본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견당사를 보내어 선진적인 국가 제도와 불교를 도입하였고, 견당사는 국제색을 띠는 여러 물품을 갖고 돌아왔다. 다자이후는 아시아와의 외교와 무역의 거점으로 번영하였다. 헤이안 시대에는 외국에서 건너온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가나' 문자로 대표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였다. 불교에서도 밀교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신앙이 유행하였고, 후세에 경전을 남기기 위해 경총이 활발하게 조영되었다.

4 아시아의 바다에 열린 장삿길 (12세기~16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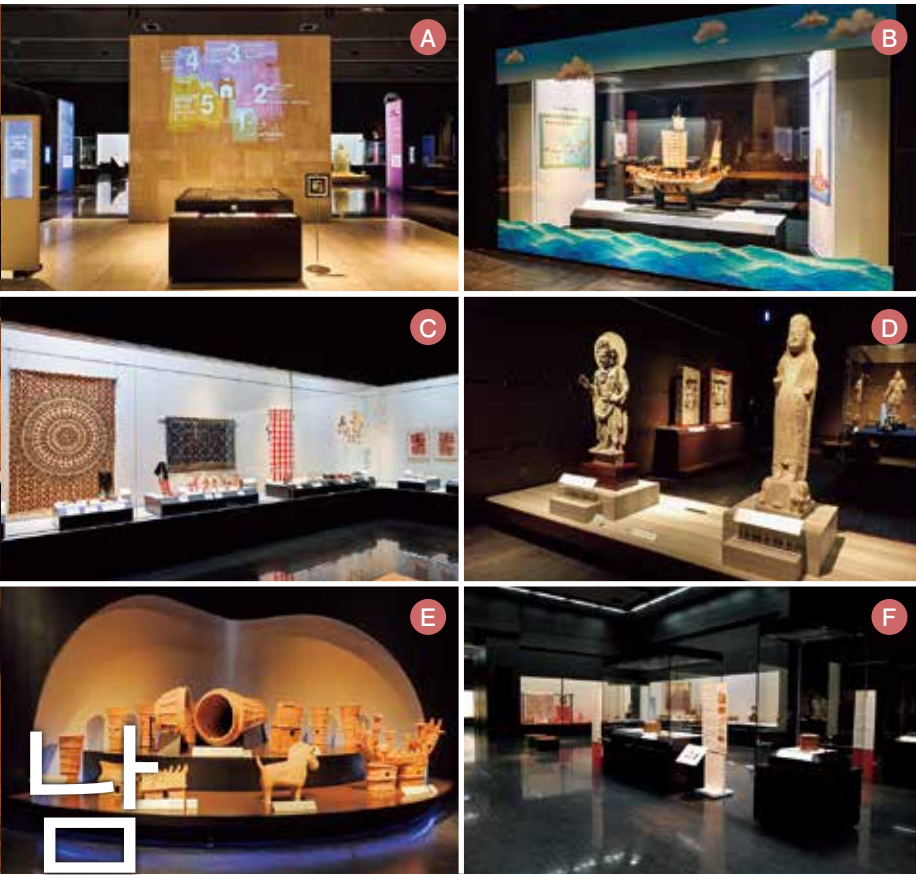
무사가 대두한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역 상인들이 바다를 활발하게 왕래하였다. 교토나 하카타 등의 도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상업이 발달하였다. 패권을 다툰 무사들 사이에서는 선종 승려가 전한 수목화나 차 등이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유행하였고, 이는 훗날 일본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다도로 발전하였다.

5 등글어진 지구, 다가오는 서양 (16세기~19세기)

무로마치 시대 말부터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해당한다. 아시아에 진출한 유럽인과의 교류를 통해 종포와 그리스도교가 일본에 전해졌고, 일본에서는 은이나 공예품 등이 수출되었다. 전란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된 에도 시대, 일본은 나가사키, 쓰시마, 류큐(오키나와), 에조치(홋카이도)를 통해 세계와 교류하였다. 일본의 자기와 칠기가 세계를 매료시킨 한편, 일본 국내에서도 세계에 대한 지식이 확산되었다. 난학 등 다채로운 문화가 꽃피어 훗날의 근대 국가를 향한 초석이 되었다.

A 가이드슨 코너
C 제 2실 아시아의 민족조형
—가네코 가즈시게 기념실—
E 다채로운 하니와
(‘활기찬 고분의 제사’ 중 일부)

B 견당사선 복원 모형
D 제 6실 아시아인의 이상적 모습
F 신춘특별공개 <도쿠가와미술관 소장 국보 하쓰네 문양 칠기 혼수품>
(제9실에서 개최)



11개 전시실

제1실 기증 기념실

중요문화재 <다채색 소나무·대나무·매화무늬 병>, 중요문화재 <일신제마도>, <침보무늬 차축모양 차술>, 그 외에도 칼이나 술 등 우리 박물관에 기증해주신 귀중한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2실 아시아의 민족조형 -가네코가즈시게 기념실-

개관 이래 약 1,200점이나 되는 귀중한 아시아 민족 조형 컬렉션을 기증해 주신 가네코 가즈시게 선생의 이름을 딴 전시실. 아시아가 발전시켜온 다채롭고 풍요로운 생활 문화의 결정체를 느끼실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2 쌀을 만난 사람들, 왕이 된 사람들

제3실 왜인전의 세계

야요이 시대의 규슈 북부에서는 일본 문화의 기반 중 하나가 된 벼농사 문화가 뿌리내리고 금속기 등의 물자가 왕래하였습니다. 일본의 국가 형성의 바탕이 된 기술과 사상을 소개합니다.

제4실 화려한 고분 제사

고분의 바깥 둘레에 세워진 하니와, 석인 등의 조형은 고분 시대의 숨결을 현대에 전하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망자를 향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5실 영상 시어터

내부로의 출입이 제한된 장식 고분을 최신 기술로 영상화했습니다. 다자이후 소개 영상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입장 가능)

3 울렁 국가를 향한 발돋움

제6실 아시아인의 이상적인 모습

아시아 사람들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추구해 온 증거인 불상. 우미하고 정당한 불교조각과 회화 등, 불교미술의 다양한 세계와 아시아적인 전개를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7실 아시아를 여행하다

아시아의 국가, 지역, 시대 등을 한정하지 않고, 매년 친숙한 테마를 설정하여 박물관 수장품을 중심으로 전시합니다. 마치 아시아를 산책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제8실 견당사와 실크로드

견당사가 동경한 중국 장안과 실크로드 교역의 모습을 유라시아 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소개합니다. 견당사 배에 실렸던 교역품을 복원한 전시에도 주목해 주세요.

4 아시아의 바다에 열린 장삿길

제9실 중세의 인적, 물적 교류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전개된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그 독자성과 공통성을 미술품과 역사자료를 통해 소개합니다.

5 동글어진 지구, 다가오는 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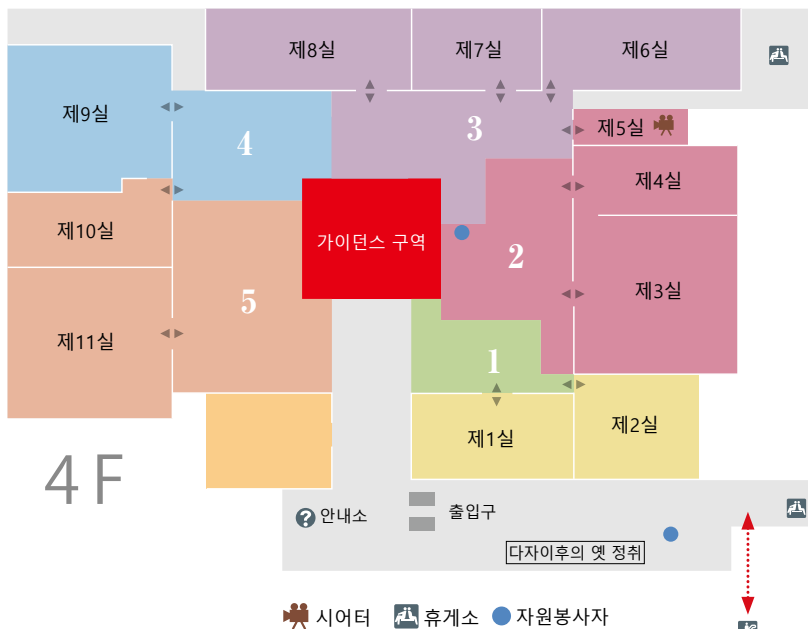
제10실 규슈 도자기의 꽃 -다나카마루 컬렉션-

실업가이면서 도자기 수집의 대가로도 알려진 다나카마루 젠 파치 선생이 모은 규슈의 도자기를 전시. 다양한 명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실 다채로운 에도문화

에도 시대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전개를 말해주는 미술품·공예품을 전시합니다. 나가사키나 류큐 등에서의 교류가 만들어낸 조형품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전시실 지도



일본과 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접하고
선인들의 숨결을 체감

문화교류전 <특집전시, 특별공개>

기간 한정으로 실시하는 독창적인 전시로, 전시실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2023년도의 특집전시, 규박 투어 PICK UP



특집전시 탄생 250주년 기념 아키타난화 입문

2023년 4월 29일(토·공휴일) - 6월 11일(일)

에도 회화에 새로운 리얼리즘 바람을 불어넣은 아키타난화는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인 1773년, 아키타번의 번주 사타케 쇼잔과 번 소속 무사 오다노 나오타케가 박물학자인 히라가 겐나이를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이듬해 나오타케가 『해체신서』의 삽화를 그릴 것을 계기로 화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아키타난화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우수한 아키타난화 컬렉션으로 알려진 아키타시립센슈미술관의 명작을 한자리에 선보였습니다.

◎주요 전시 작품

- 《해체신서》 권수 스키타 겐파쿠 등 번역, 오다노 나오타케 그림 에도시대, 1774년 아키타시립센슈미술관
- <사자> 오다노 나오타케 그림 에도시대, 18세기 아키타시립센슈미술관
- <매> 오다노 나오타케 그림, 도슈 찬 에도시대, 18세기 개인 소장(아키타시립센슈미술관 기탁)



특집전시 송고한 믿음의 아름다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 미술-

2023년 9월 5일(화) - 10월 15일(일)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4세기 때 일입니다. 이후 불교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문화와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고려(918~1392)와 조선(1392~1910)시대에 독자적인 미로 발전하여, 많은 불상과 불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천 년에 걸친 고려와 조선시대 가운데 11~16세기의 작품을 전시하여 작품이 가진 역사적 배경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주요 전시 작품

- 중요문화재 양류관음상 고려시대, 1310년 사가현, 가가미 신사
- 중요문화재 지장보살상 고려시대, 13~14세기 가나가와현, 엔가쿠지 절
- 청자 음각 물가풍경무늬 정병 고려시대, 12세기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특집전시 일본 도검의 미 -기타자키 데쓰로의 애장품-

2024년 1월 30일(화) - 4월 14일(일)

2022년 규슈국립박물관은 총 31점의 도검류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자인 기타자키 데쓰로 선생은 기타큐슈시에서 오랫동안 지역 의료에 전념하는 한편, 고전 문화와 미술에 대한 조예를 넓혀 가며 일본도 수집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기타자키 선생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다수의 명도를 소개하며 이와 더불어 도검과 관련된 독특한 용어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주요 전시 작품

- 다치(사다쓰나 제작) 헤이안시대, 12세기 규슈국립박물관
- 다치(분고국, 사다히데 제작) 헤이안시대, 12세기 규슈국립박물관
- 단도(구니미쓰 제작) 가마쿠라시대, 13세기 규슈국립박물관



규슈국립박물관 새해 투어 용을 찾아라!

2024년 1월 1일(월, 공휴일) - 2월 4일(일)

십이지 동물로서 현대 우리에게도 친숙한 용은 오래전 고대부터 입체적인 상이나 그림,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져 왔습니다. 이 기획에서는, 2024년의 십이지 동물인 용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을 전시하여 지역과 시대, 분야를 넘어 나타난 용의 도상을 즐기며 용의 해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주요 전시 작품

- 국보 범종 아스카시대, 7세기 간제온지 절
- 운순가루타 에도시대, 17세기 규슈국립박물관
- 중요문화재 불발반도 묘손 그림, 가마쿠라 시대, 1323년 규슈국립박물관

문화교류의 심층으로



문화교류전시실 전시 풍경(다보 천불 석당)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 영상 '다자이후와 오토모노 다비토'(영상 시어터)

전시 해설: 뮤지엄 토크, 규슈국립박물관 특별 강좌

규슈국립박물관 연구원의 전시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뮤지엄 토크

실시일시: 첫째, 셋째, 다섯째 주 화요일(원칙) 오후 3시부터 30분 정도

장 소: 4층 문화교류전시실

청 강 료: 무료(단, 문화교류전의 관람료는 필요합니다.)

• 규슈국립박물관 특별 강좌

실시일시: 연 4~6회, 회당 60~90분

장 소: 1층 뮤지엄홀

청 강 료: 무료

과거의 해설주제

- 오키노시마 섬으로부터 온 보물들
- 고려 불상의 비밀
- 삼채 이야기
- 곡수의 연회 ~전통의 회식~
- 뱃속의 벌레가 날된다! ~무로마치, 전국시대의 의학서~



칼럼 | 연구원이 즐겁게 해설합니다!

뮤지엄 토크와 규슈국립박물관 특별 강좌에서는 연구원이 적극 추천하는 전시와 작품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부분과 시대 배경, 최신 연구 성과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나 역사의 비화가 등장하기도 하고, 토크 종료 후에는 질문도 받습니다.

유튜브 <kyuhakuchannel>에서도 박물관 직원이 출연한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전시과장
사이베 마야

특별전



특별전 <아르누보의 유리-갈레와 돔 형제의 자연찬가-> 전시풍경

특별전은 세계의 미(美)와 지(知)가 집결된 감동의 보물창고

연간 수회 개최하는 특별전에서는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국내외 우수 작품을 엄선하여 소개합니다. 전시의 관점이나 방법에도 노력을 기울여 처음 보는 분도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더욱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전시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특별전 스케줄



국보 비늘 갑옷을 입은 무인 하니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2025.1.21-5.11

비늘 갑옷을 입은 무인 국보지정 50주년 기념/ 규슈국립박물관 20주년 기념 하니와

※전시회 개최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명설비의 수리 등을 위해 2024년 4월 1일(월)부터 2024년 12월(예정)까지 3층 특별전시실을 폐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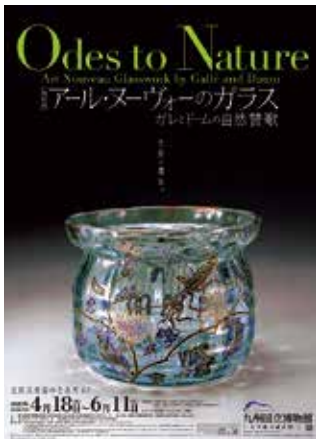


중요문화재 사슴모양 하니와
규슈국립박물관 소장

"특별한" 美와 知의 세계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는 특별전은 규슈국립박물관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귀중한 전시품과 참신한 기획은 널리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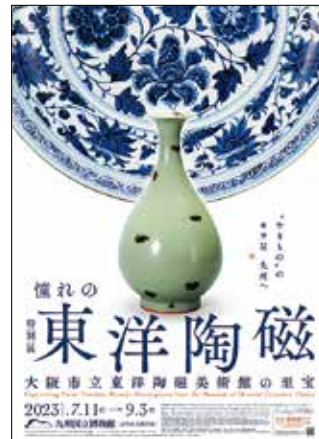


아르누보의 유리 —갈레와 돔 형제의 자연찬가—

2023년 4월 18일(화) - 6월 11일(일) (49일간) 관람객수 49,485명

규슈국립박물관 최초 유럽 공예전!

일본미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탄생한 아르누보. 아르누보 운동을 이끈 유리 공예 작가 에밀 갈레와 돔 형제의 작품들을 세계 굴지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기타자와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동경의 대상, 동양도자 —오사카시립동양자기미술관의 보물

2023년 7월 11일(화) - 9월 3일(일) (49일간) 관람객수 20,851명

세계유수의 동양도자 컬렉션의 명품을 대거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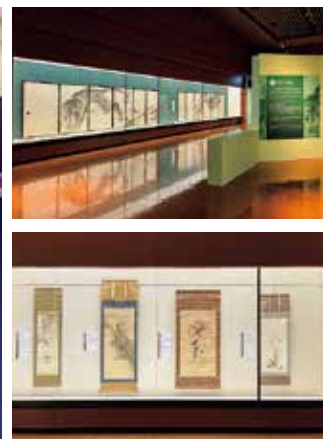
국보 유적 천목 찻잔을 비롯해 귀중한 동양도자 컬렉션을 지닌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그 귀중한 소장품에서 국보, 중요문화재를 포함해 모두 88점을 공개하여 일류 회화, 고고자료와 함께 일본과 동양자기의 긴 역사와 깊은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고대 멕시코 —마야, 아스테카 그리고 테오티우아칸

2023년 10월 3일(화) - 12월 10일(일) (60일간) 관람객수 88,895명

일본미술과는 다른 신선한 인상을 주는 고대 멕시코 문명전의 결정판! 3천년 이상에 걸쳐 번영을 이룬 멕시코 고대문명. 그 중 "마야", "아스테카", "테오티우아칸"이라는 대표적인 고대문명에 초점을 맞춰, 아시아 최초 공개하는 레이나 로하(붉은 여왕)의 가면을 비롯해 약 140건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난 독자적인 세계관과 조형미를 통해 고대 멕시코 문명의 깊이와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탄생 270년 나가사와 로세쓰 —자쿠추, 오묘의 맥을 이은 천재 화가

2024년 2월 6일(화) - 3월 31일(일) (48일간) 관람객수 83,080명

'기상천외한 화가'의 초기부터 말년까지의 명작을 대거 공개

나가사와 로세쓰(1754~99)는 18세기 후반 교토를 거점으로 활약한 화가로, 현재까지도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본 전시는 규슈 최초로 로세쓰의 작업을 더듬어 나가는 본격적인 전시회입니다. 대표작인 <용과 호랑이> <와카야마현 무료지 절, 구시모토 오교로세쓰관 소장>를 비롯한 64점의 작품을 공개하여 로세쓰 특유의 기발한 착상과 다채롭고 자유로운 표현을 소개했습니다.



학예부장
시라이 가쓰야

칼럼 | 특별전이 개최되기까지

수년, 때로는 그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원의 조사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특별전입니다. 신사와 사찰의 훌륭한 보물과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 나아가 서양 미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즐겁고 알기 쉬운 전시회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해 아이디어를 가미하는 것이 규슈국립박물관의 특징입니다.

특별전 「특별전 HISTORY」



2005년도

美的 나라 일본
10.16~11.27(43일간) 441,938명

중국 미(美)의 십자로
2006.1.1~4.2(80일간) 251,963명



2006년도

우루마 추라(아름다운 오키나와)섬
류큐(琉球)
4.29~6.25(51일간) 177,478명

남국 소개 이야기
7.29~9.3(37일간) 63,560명

바다의 신들
10.8~11.26(45일간) 139,981명

자쿠추(若冲)와 에도회화
2007.1.1~3.11(62일간) 300,171명



2007년도

미래를 위한 선물
4.10~6.10(54일간) 77,380명

일본의 도자기
7.7~8.26(46일간) 50,986명

혼간지(本願寺)전
9.22~11.18(51일간) 197,697명

교토고잔(京都五山) 선(禪)문화전
2008.1.1~2.24(49일간) 171,336명



2008년도

국보 두루마리 그림전
3.22~6.1(64일간) 131,197명

시마즈의 국보와 아쓰히메
시대
7.12~8.24(40일간) 152,420명

국보 텐진(天神)님
9.23~11.30(61일간) 174,698명

공예의 현재 전통과 창조
2009.1.1~3.16(65일간) 72,637명



2009년도

성지 티베트
포탈라궁과 천공의 보물
4.11~6.14(58일간) 140,917명

고후쿠지(興福寺)창건 1300년 기념
국보 아수라전
7.14~9.27(68일간) 711,154명

고대 규슈의 국보
10.20~11.29(37일간) 72,741명

교토 묘신지(妙心寺)
-선(禪)의 보물과 규슈·류큐
2010.1.1~2.28(52일간) 130,231명



2010년도

파리에 핀 옛이마리(古伊万里)의 꽃
4.6~6.13(61일간) 84,738명

말 아시아를 달린 이천년
7.13~9.5(48일간) 42,022명

탄생! 중국문명
10.5~11.28(48일간) 53,409명

타계 120주년 고희전
2011.1.1~2.13(42일간) 354,311명



2011년도

오바쿠(黄檗) - OBAKU
3.15~5.22(61일간) 55,539명

되살아나는 국보
-지키고 전하는 일본의 미(美)
6.28~8.28(54일간) 118,528명

초원의 왕조 거란
-아름다운 3명의 프린세스
9.27~11.27(54일간) 75,880명

호소카와(細川)가문의 보물
-주육같은 에이세이(永青)문고 컬렉션
2012.1.1~3.4(56일간) 113,290명



2012년도

허리야마 이쿠오(平山郁夫)실크로드의 발자취
-인류 유산에 건 화가의 인생
4.3~5.27(49일간) 110,047명

미(美)의 원더랜드
15명의 교토 화가(京繪師)
7.10~9.2(49일간) 75,415명

베를린 국립미술관전
-공부가 되는 유럽 미술의 400년
10.9~12.2(51일간) 224,324명

보스턴 미술관
일본 미술의 보물
2013.1.1~3.17(66일간) 236,725명



2013년도

대 베트남전
4.16~6.9(49일간) 71,192명

중국 왕조의 보물
7.9~9.16(62일간) 77,554명

오와리 도쿠가와(尾張徳川)
가문의 보물
10.12~12.8(50일간) 139,448명

국보 대 신사(神社)전
2014.1.15~3.9(47일간) 89,561명



2014년도

화려한 궁정문화 고노에(近衛)가문의 국보
-교토·요메이(陽明)문고전
4.15~6.8(49일간) 60,808명

클리블랜드 미술관전
-영화에서 찾는 일본의 미
7.8~8.31(49일간) 70,794명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
-신품(神品)보물
10.7~11.30(51일간) 256,070명

고대 일본과 백제의 교류
-다자이후·아스카 그리고 공주·부여
2015.1.1~3.1(52일간) 59,629명



2015년도

센고쿠 다이묘
-규슈의 영웅들과 아시아의 큰 물결
4.21~5.31(37일간) 77,455명

대영박물관전
-100개의 물건이 전하는 세계의 역사
7.14~9.6(49일간) 133,174명

美的 나라 일본
10.18~11.29(40일간) 160,753명

황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켜져온 실크로드의 비보
2016.1.1~2.14(42일간) 67,641명



2016년도

시황제와 대방마용
3.15~6.12(79일간) 191,222명

하카사야마 가이이
자연과 사람 그리고 마을
7.16~8.28(39일간) 133,002명

교토 고산지(高山寺)와 묘에(明恵) 성인(上人)
-특별공개 조수회화(鳥獸戯畫)
10.4~11.20(45일간) 161,172명

무나카타(宗像)·오키노시마(沖ノ島)
와 야마토(大和) 조정
2017.1.1~3.5(56일간) 75,966명



2017년도

태국 ~찬란한 부처의 나라~
4.11~6.4(49일간) 56,314명

세계유산 라스코전
크로마뇽인이 본 세계
7.11~9.3(49일간) 118,555명

신 모모야마전
- 대항해시대의 일본 미술
10.14~11.26(38일간) 87,413명

왕희지와 일본의 서(書)
2018.2.10~4.8(50일간) 70,110명



2018년도

최상의 인상파전 - 뷔를레 컬렉션-
5.19~7.16(54일간) 198,489명

오쿠라 컬렉션
10.2~12.9(58일간) 63,069명

교토 다이고지 절
- 진언일교의 우주
2019.1.29~3.24(48일간) 74,748명



2019년도

교토 다이호온지
가이케이와 조케이의 부처
4.23~6.16(49일간) 53,524명

무로마치 쇼군
- 전란과 예술 속의 아시카가 15대 -
7.13~9.1(45일간) 86,399명

일중 문화교류협정 체결 40주년
특별전 '삼국지'
10.1~2020.1.5(77일간) 140,155명

르네 위그의 눈빛
프랑스 회화의 경수 - 대양식의 형성과 변모
2020.2.4~3.29(48일간)
※2/27~3/29는 임시휴관 45,636명



2020년도

나라현 주구지 절의 국보
2021.1.26~3.21(48일간) 50,432명



2021년도

일본 천황 즉위 기념 특별전
쇼쇼인 보물의 부활
- 재원모조품으로 살펴보는 나라시대의 기술 -
4.20~6.13(49일간) 18,157명

일본 황실의 보물
- 규슈의 미, 황실로 이어진다 -
7.20~8.29(37일간) 43,197명

일본인과 더불어 온 산과 바다
- 믿음과 천혜의 풍경 -
10.9~12.5(50일간) 17,383명

사이조 입적 1200주기 기념 특별전
사이조와 천태종의 모든 것
2022.2.8~3.21(37일간) 29,518명



2022년도

호쿠사이
4.16~6.12(51일간) 135,955명

오기나와 반환 50주년 기념 특별전 류큐
7.16~9.4(45일간) 41,054명

폼페이
10.12~12.4(48일간) 79,919명

가야
2023.1.24~3.19(48일간) 26,990명



2023년도

아르누보의 유리
- 갈레와 동 형태의 자연찬가-
4.18~6.11(49일간) 49,485명

동경의 대상, 동양도자
-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보물
7.11~9.3(49일간) 20,851명

고대 멕시코
- 마야, 아스테카, 테오티우이칸
10.3~12.10(60일간) 88,895명

탄생 270년 나가사와 로세스
- 차쿠추, 오코의 맥을 이은 천재 화가
2024.2.6~3.31(48일간) 83,080명

과거 특별전 PICK UP



美의 나라 일본

2005.10.16~11.27(43일간)
입장객수: 441,938명

개관 기념 특별전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않는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을 접하다

규슈국립박물관 개관 기념으로 개최된 특별전 <美의 나라 일본>. 동아시아 국가 중 한 국가로서 성립한 고대 일본의 문화재, 그리고 대항해시대의 서양 국가와의 교류로 태어난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문화재 중에서 국보 7점과 중요문화재 30점을 포함한 122점을 엄선하여 전시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번 <美의 나라 일본>을 개최하였습니다.

column | 찾아오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수많은 귀중한 보물

일본과 아시아의 역사 및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양을 테마로 한 전시회까지 수많은 특별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사회의 움직임에 맞춰, 전시회 테마 관련 이벤트와 다양한 정보 제공에 충실을 기해, 여러분께서 더욱 크게 만족하실 수 있는 전시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문화교류전에서도 특별전과 연계된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니 함께 관람해 주십시오.



부관장
고이즈미 요시히데



교육보급활동·자원봉사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독자적인 교육 보급 프로그램을 전개.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육과 지역 사회 공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지파

1층에 있는 무료 체험형 전시실 '아지파'. 아지파란 '아시아의 들판'이라는 의미로 이곳에서는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처음으로 박물관을 접하는 장소로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시 내용과 디자인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아지안

계절 등에 맞추어 아지파의 전시품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지카라

시기에 따라 주제를 정해서 전시. 학예사나 고고학자 체험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나

여러 나라의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나 음악을 들어보거나 물건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규팩크

규슈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을 토대로 개발한 학습 지원 도구로서 학교 수업에서의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가득 들어있는 실물 자료와 최신 기술을 구사한 복제품 등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마치 박물관에 있는 듯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총 16종류)

수업 외에도 학교 행사 및 연수회, 박물관 견학의 사전 학습 등에 이용하여 '진품'을 접하는 감동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대여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직접 수령 및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의 왕복 배송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23페이지 참조)



다양한 방문객 여러분을 위한 프로그램

전시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즐기는 여러 방법과 그 매력을 알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폭넓은 관람객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야요이 시대 기타큐슈에서 사용된 옹관이라는 관의 재현품을 사용해 왕을 매장하는 워크숍 "임금님이 죽었다! 옹관에 넣자!"를 실시했습니다. 야요이 시대에서 사용되어 온 관두의, 고훈시대의 의상, 헤이안 시대 초기의 의상을 입는 의상체험 이벤트인 "고대인으로 변신!"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다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각장애인 대상 가물란 워크숍과 청각장애인 대상 백야드 투어 등을 실시했습니다.

박물관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출장 박물관 "규박 캐러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빛이나 소리, 냄새 등에 민감한 사람을 위한 "안심 지도"를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주요 실적



옹관묘 매장체험 워크숍
"임금님이 죽었다!
옹관에 넣자!"

왕을 옹관에 매장하는 체험. 쉬운 일본어로 실시.



의상체험 이벤트
"고대인으로 변신!"

야요이 시대, 고훈시대, 헤이안 시대 초기의 의상을 입어보는 체험.



시각장애인 대상
가물란 워크숍

인도네시아의 악기 가물란을 연주하고 듣는 체험.



청각장애인 대상 수화통역과
함께하는 백야드 투어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박물관 내부를 수화통역과 함께 안내.



출장 박물관 규박 캐러밴

박물관 밖에서 즐기는 악기와 의상 체험.



안심 지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거나 불편할 수도 있는 공간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자원봉사자 활동

지역 주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은 규슈국립박물관이 이곳 다자 이후에 유치 및 설립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지역 그리고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 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는 박물관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박물관에 와 주신 분들이 역사와 문화를 친근하게 느껴주시길', '박물관에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람객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규슈국립박물관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전시 해설, 교육 보급, 관내 안내 등 1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원봉사자 그룹별 활동 내용

전시 해설	문화교류전시실의 전시품 안내 예약 단체(일반단체, 학교) 및 당일 접수(개인, 그룹)에 대응
교육 보급	체험형 전시실 '아지파'에서의 방문객 대응 참가 체험형 만들기 워크숍 등의 기획 및 실시
관내 안내 (외국어 안내 포함)	관내 개요 및 시설 안내, 백야드 투어 안내 외국어 안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로 관내 개요 및 시설 안내
환경	IPM(종합적 유해생물관리) 활동에 관한 지원
자료 정리	향토 인형 조서 작성·데이터화 및 '아지가라'의 기획 전시
이벤트·지원	홍보지 작성, 관람객 대상 이벤트의 기획 및 실시
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주도 행사의 기획 및 실시
필드	산책로 유지관리 및 산림 보전 활동
수화	지역 자원봉사자 그룹으로 구성 청각장애인 대응 등을 지원



칼럼 | 인기 만점! 백야드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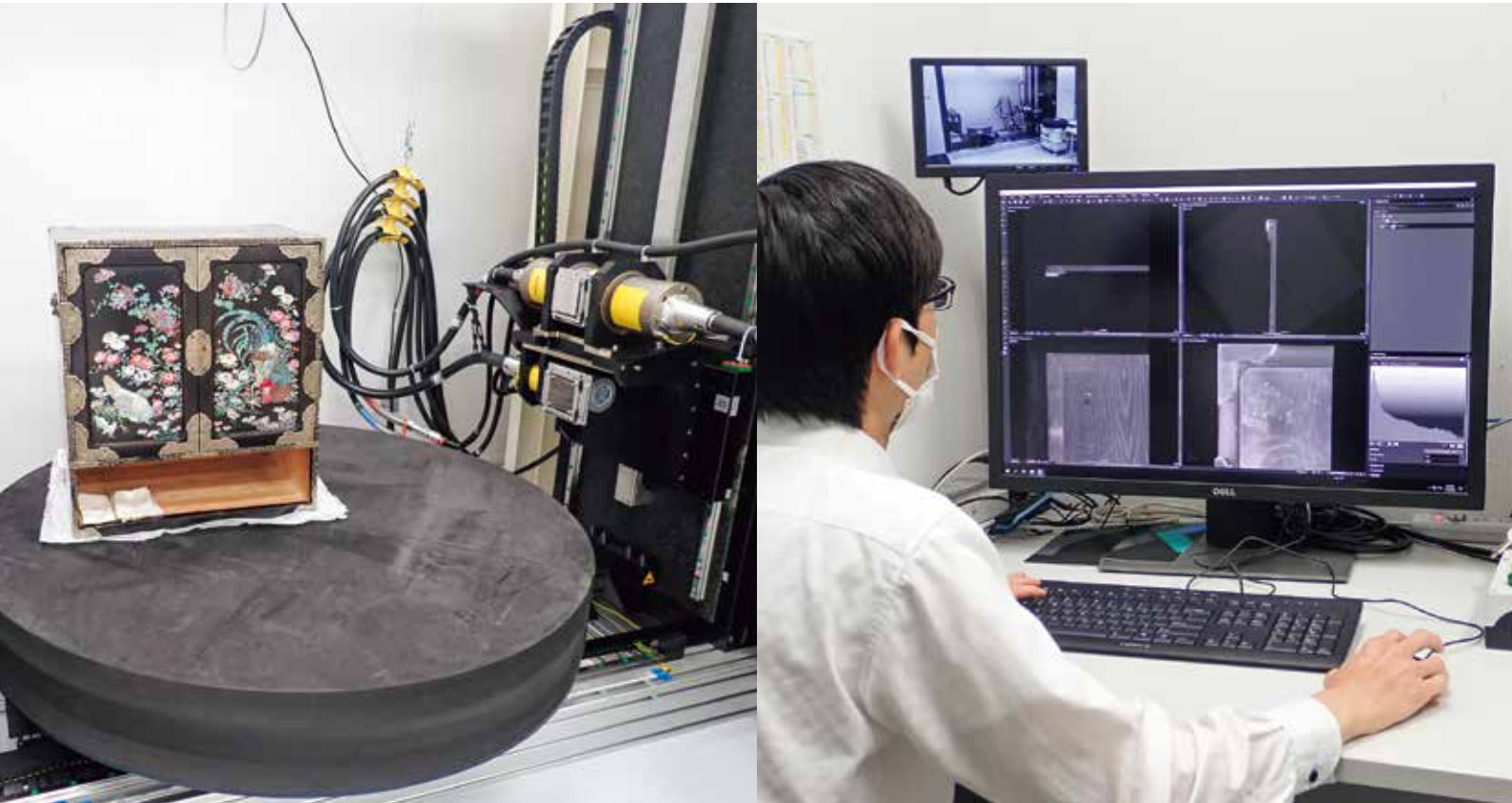


총무과장
다메라카 유이치로

박물관 직원 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박물관 내부. 그곳에는 수집한 문화재를 보관하는 수장고와 최신 기술로 문화재를 지키는 보존수복시설 등 박물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시설과 설비를 관내 안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백야드 투어는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수집하고', '지키고', '전시하는' 박물관 업무의 한 부분을 꼭 보려 와주십시오.



새로운 발견을 찾아서

열정적인 탐구심과 적극적인 조사·연구 활동이 신비의 문을 연다.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현재 약 30명의 연구원이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2024년 4월 1일 현재) 연구원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박물관 전체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연구자·전문가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면서, 항상 새로운 필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비 조성 사업(과연비)

문부과학성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가 실시하는 이 사업은 일본국 정부 전체의 경쟁적 자금(연구자가 응모한 연구계획을 심사하여 배분하는 자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도입니다.

국립박물관도 하나의 연구기관으로서 이러한 외부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선진적인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택 실적 2024년도 과학 연구비 조성 사업 채택 연구 과제 일람

(2024년 4월 1일 현재)

연구 대표자	소속 및 직명	연구 종목	연구 과제명	연구 기간(연도)
도미타 준	관장	기반연구(B)	중국서화의 제발 등 부속자료에 관한 종합적 연구	2020-2024
기가와 리카	박물관과학과장	기반연구(B)	박물관 자료 및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유기산, 유황화합물 등의 발산량 및 영향 조사와 대책 검토	2024-2027
가와바타 노리코	기획과 특별전실장	기반연구(C)	중국제 쟁금기의 기초적 연구 - 동아시아 칠기의 상호적 영향 -	2021-2025
마쓰우라 고스케	문화재과 연구원	기반연구(C)	근세 다이묘가문 전래 컬렉션의 기초적 연구 - 마쓰우라 가문 컬렉션 분석을 통해 -	2021-2025
노지리 다다시	문화재과장	기반연구(C)	일본고사경의 주소정보 수집과 분석에 근거한 불전의 전파 및 전래 연구	2024-2026
리 메이	기획과 어소시에이트 펠로우	기반연구(C)	중국 천수 맥적산 석굴벽화 연구와 편년 연구	2024-2026
와타나베 히로키	박물관과학과 연구원	젊은 연구자의 연구	수리모델과 비파괴평가법에 근거한 문화재 해충 검사 정밀도 향상	2022-2024
기가와 리카	박물관과학과장	국제공동연구가속기금(해외연계연구)	일본회화에서 사용된 색재의 광퇴색 양상 상세분석과 퇴색 계산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2023-2026

(기반연구 B) 중국서화의 제발 등 부속자료에 관한 종합적 연구

현대에 사용된 중국 서적 및 회화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전래를 전하는 여러 흔적이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한 소장가들은 스스로 생각한 바를 제발로써 써 넣고, 감장인을 찍어 왔습니다. 보관하는 상자에도 진품임을 보증하는 도장이 있으며, 상자 속에는 침장이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속자료는 저마다 미술적, 문학적, 역사적으로 고유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에는 본체에만 초점을 두어 제발 등의 부속자료는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부속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제발 등 부속자료 개별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고 그 학술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 주지하고자 합니다.



다이토쿠 아사쿠라조소관 조사



교토국립박물관 조사



효고현립미술관 조사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문화재방재센터

최근 빈발하고 있는 거대 지진이나 태풍, 호우 등의 재해는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각지의 문화재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기구는 앞으로의 재해에 대비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미래에 전하기 위해 2020년 10월 1일 문화재 방재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문화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감재, 재해 발생 시의 문화재 구조 지원, 피해를 입은 문화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체제 구축과 기술 개발이라는 3가지 미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지금까지 규슈의 자치단체, 박물관, 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는 피해를 입은 문화재를 구출하는 문화재 구조 사업의 사무국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최근 규슈 각지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를 입은 문화재의 구조 지원을 행하였으며, 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문화재 행정 직원 및 학예원을 대상으로 피해 문화재의 응급처치 워크숍과 재해 대책의 과제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문화재 방재에 대한 보급, 계발활동을 행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서화의 초기 처치 워크숍



매장문화재센터에서 문화재 방재를 테마로 한 강습

칼럼 | 연구 성과의 공표



학예부 박물관과학과장
기가와 리카

평소부터 축적해 온 연구 성과의 일부를 전시 및 강연회, 심포지엄, 연구기요『동풍서성(東風西聲)』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T를 이용하여 조사한 문화재의 구조상 특징을 널리 공개하기 위해, CT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복제품을 교육보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했을 때의 즐거움, 두근거림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3차원 계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만질 수 있는 전시 자료

문화와 예술이 일본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

아시아 각지의 박물관 등과 적극적인 교류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규슈국립박물관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외 박물관 등과 학술교류, 공동연구, 연구자 파견과 연수,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국의 난징박물관, 내몽고박물관, 중국문화교류중심, 청두박물관, 선양고궁박물관, 상하이박물관,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 태국의 문화성예술국과 학술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류협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과의 교류사업



4년만에 인적교류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상호간에 연구원을 파견하고 각 박물관의 소장품과 인연이 깊은 고고자료의 조사 및 장애인 대응 상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를 시찰하고 최신 전시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태국 예술국과의 학술교류



단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마츠우라시 교육위원회와 도후쿠 예술공과대학의 협력 아래, 해저유적에서 출토된 목제품의 보존처리 방법의 기술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과의 학술교류



스미토모재단의 조성을 받아 공동으로 문화재 보존 수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원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유학생 이벤트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매년 11월 3일을 '유학생의 날'로 정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로서 전시해설 및 백야드 투어, 체험형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슈국립박물관 SNS의 다언어화



규슈국립박물관은 유튜브 및 트위터 등의 SNS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 한국어 및 중국어로 번역함으로써 해외에 계신 여러분께도 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언어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이용자가 많은 Facebook을 통해 4개 국어(한, 영, 중, 일)로 규슈국립박물관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붓글씨(가키조메) 대회



도후쿠 3현의 관광과 특산품

1년 내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여러 이벤트

규슈박물관에서는 특별전이나 상설전시 외에 뮤지엄 홀이나 다실 등을 활용한 여러 행사를 1년 내내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언제나 친근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즐거운 기획을 제안합니다.

■카페 콘서트

1층 규슈박물관 M카페 앞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음악 전공 학생들의 실내악 연주회입니다.



■규박 어린이날 축제

다자이후 천만궁과 다자이후 유원지와 함께 골든위크 기간 중에 개최하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다도체험

다실 '호만테이'에서 다도 초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밖에 봄에는 '벚꽃 다회', 가을에는 '단풍 다회'와 같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도체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통예능 워크숍

샤미센과 노가쿠 등 일본의 전통예능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워크숍 뿐만 아니라 뮤지엄 홀에서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칼럼 | 매년 열리는 '장식 야마카사'의 전시



교류과장
다카무쿠 고타

국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 2016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하카타 사람들의 활기를 일본 전국 각지, 해외 각지에 소개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관 이래 '장식 야마카사'의 전시를 매년 실시해왔습니다. 전시 설치와 신을 부르는 의식은 일반 공개로 이루어져, 일반 관람객 여러분들도 직접 특유의 긴장감과 신성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귀중한 문화재를 미래에 전하기 위하여

문화재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의 결정체로 그 수집과 보관은 박물관이 맡아야 할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정성을 다해 수장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설계된 수장고에서 보관

박물관은 선인들의 발자취인 각종 문화재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문화재는 '수장고'에 보관됩니다. 규슈 국립박물관의 수장고는 건물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직접 외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공기층을 사이에 둔 "이중 구조(보온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조(空調) 설비는 항온항습 사양의 공조기(空調機)를 채용함으로써 수장고 안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장고의 벽·천장에는 규슈산 삼나무, 바닥에는 홋카이도산 너도밤나무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조에만 의존하지 않는 습도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PM(종합적 유해생물관리)

박물관에 있는 많은 자료 중 목재나 종이, 피혁, 천을 비롯한 유기 소재는 곤충의 집이나 먹이가 되어 손상을 입기 쉽기 때문에 충해(蟲害)로부터 문화재를 지키는 것도 박물관의 소중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해충을 주로 강력한 약제로 구제해 왔으나, 이 약제가 오존층 파괴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새로 도입된 것이 예방에 중점을 둔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입니다. 가능한 한 약제를 쓰지 않고 사람의 눈과 손으로 일상 점검과 청소 등의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구제하는 관리 방법입니다.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건축 당시부터 IP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활동에 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도 참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연구비의 획득과 문화청의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의 보조를 받아, IPM 지원자의 양성과 연수 프로그램의 책정·실시 등을 해 왔습니다.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일상 점검·청소에 힘써 가겠습니다.



규슈 현지의 삼나무를 내장재로 사용하여 습도조절기능이 뛰어난 수장고 공간



수장고
각 수장고는 수장하는 문화재의 크기나 재질·형상에 맞춘 여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장고의 창문
안에서 보이는 타임캡슐입니다.



꼼꼼한 수장고 IPM 유지 및 관리
문화재에 해충과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장고 내부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청소하여 관리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문화재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미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술·공예·고고·역사 등 폭넓은 관점에서 문화교류에 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 수장품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일본과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한 미술, 고고, 역사, 민족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입 외에 기증이나 기탁도 받아 규슈국립박물관다운 관점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새로이 10건을 구입하고, 78건을 새롭게 기증받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구입

① 남신좌상 1구

중요문화재
헤이안 시대, 12세기

【작품 개요】

신상은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와 불교의 융합이 진행된 나라시대에 성립하여 헤이안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상의 얼굴 생김새와 납작한 체형은 헤이안 시대 후기인 12세기 신상의 조형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표면의 채색이 잘 남아 있어, 당시의 풍습을 전해주는 귀중한 작품입니다.

이 조각상과 같은 나무에서 조각되어 같은 장소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박물관 소장 여신좌상이 있어, 이번 계기로 두 조각상이 규슈국립박물관에서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명문 '치쿠슈 거주 사'가 새겨진 단토 1구

중요문화재
남북조시대 14세기



【작품 개요】

남북조시대를 대표하는 도공 사의 단토. 칼자루에 숨겨진 승배(나카고) 부분에 '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 도공은 '사문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부나카고(만들어진 상태 그대로의 승배)에 제작자를 새겨넣은 드문 작품인 동시에 같은 제작방식의 단토 중에서도 최대의 길이를 자랑합니다. 칼날무늬 가운데 긴스지, 스나가시라고도 불리는, 선상에 있는 니에(칼날에 은모래를 뿌린 것처럼 빛나 보이는 무늬)가 확실히 드러나 있어, 호쾌하면서도 화려한 작품입니다.

기증

③ 티베트의 포 1점

18세기
가네코 구니오 씨 기증

【작품 개요】

장포(츄바)라고 불리는 티베트 민족의상. 표면의 비단은 원래 청대에 관제공방에서 궁정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청 왕조의 길복포를 장포(츄바)로 바꾼 귀중한 예시입니다.

관제공방에서 사용된 문양과 직물은 신분에 따라 무늬와 비단 색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표면의 비단에 오조의 이무기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중국 황제가 티베트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에게 하사했거나 혹은 그 신하에게 건넨 길복포라고 추정됩니다.



칼럼 | 문화재를 지킨다 -등록과 관리-

문화재의 수집과 관리는 박물관의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소중한 문화재를 후세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각각의 문화재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장 등록입니다. 어떠한 유래인지, 박물관에 들어와서 어디서 보관되고 어떻게 전시되어 왔는지, 수리된 적은 있는지, 상태에 변화는 없는지, 문화재의 역사로서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학예부 문화재과장
노지리 다다시

수복 기술

- A 프리 암 스탠드와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 B 당관 소장 <주칠 나전 화조초수무늬 이충농> 수복
- C 당관 소장 <중요문화재 쓰시마 소씨 가문 관련 자료> 수복
- D 당관 소장 <불열반도> 수복
- E 정밀 3차원 계측



천 년 전의 문화를 천 년 후로 박물관 과학을 구사한 최신 기술

최신 박물관 과학을 이용한 보존과 수복

X선 CT 스캐너 등의 최첨단 기술을 통해 문화재를 안전하게 조사하여 그 보존 상태를 밝혀낸 후, 현재 상태에 무리가 없는 보존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복작업은 6개의 문화재 보존수복시설(보수지(補修紙) 제작 등, 고문서·서적·전적(典籍), 회화, 조각, 고고학, 칠공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유해한 생물을 처리하고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저산소 농도 처리법, 이산화탄소 처리법 등 친환경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이 문화재의 수리 <중요문화재 쓰시마 소씨 가문 관련 자료>

해충으로 인한 구멍이 훌륭히 수복되었습니다.



수리 전(부분)



수리 후(부분)

문화재수리 교육 보급사업



직원도 참가하는 자연풀 수기



고문서 보존 기초 강좌



X선 CT 조사 에히메현 도묘지 절의 보살유희좌상(여의륜관음으로 전해짐)

X선 CT 스캔을 통한 분석으로 불상 내부 목 부분에 약 5.2cm의 '목제 팔각 오륜탑'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 안에는 유골을 본뜬 금속제 물질(사리)이 들어있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오륜탑

안심할 수 있는 면진구조와 에너지 절약 대책. 사람과 문화재의 안전, 그리고 자연환경을 지킵니다.

3종류의 면진구조

지진대국인 일본에서, 지진으로 문화재가 넘어지고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슈국립박물관의 건물은 '면진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동이 바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 진동을 완만하게 하여 전시실, 수장고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후쿠오카현 서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진도4)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어 면진구조의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면진층 견학(백야드 투어)

박물관을 둘러싼 '더블스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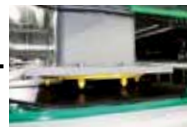
규슈국립박물관 벽면에는 더블스킨 유리를 약 3,100장·약 16,000㎡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면 더블스킨 구조의 폭은 약 1.5m로, 이 공기층에 의해 밖의 온도가 직접 건물 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로를 방지하며, 이중 유리로 자외선을 99% 차단합니다. 이 덕분에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한 내부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창을 채택함으로써 자연광을 건물 내에 들어오게 하여 주위의 산들과 조화를 이룬 공간을 연출하는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면진층 =



적층 고무 아이솔레이터 (1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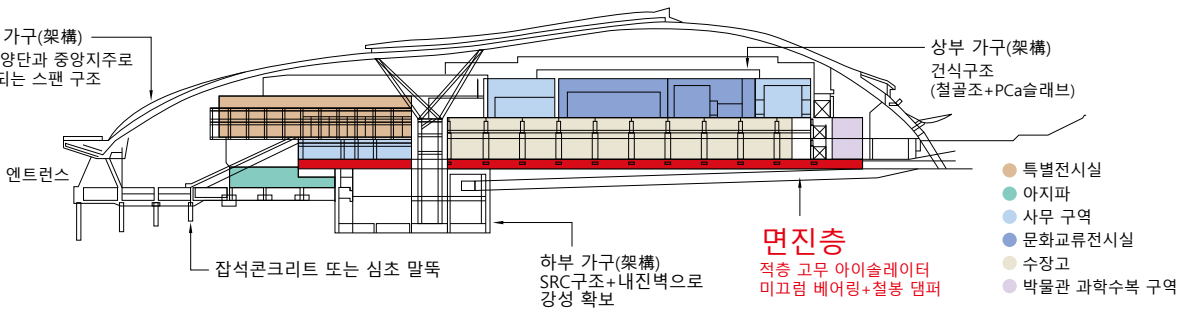


미끄럼 베어링 (45개)



철봉 댐퍼 (40개)

지붕 가구(架構)
동서 양단과 중앙지주로
지탱되는 스패ن 구조



환경을 배려한 자연 에너지의 활용

규슈국립박물관은 에너지 절약·자원 절약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을 최대한 배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최대 40kw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붕 살수 설비 ...빗물을 이용한 설비. 지붕 밑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쾌적한 내부 환경을 유지합니다.

빗물 이용 설비 ...지붕에 내린 비를 지하의 저류층에 모아 여과한 후 화장실 세정수·식재의 살수 등에 이용합니다.

태양열 이용 설비 (스카이 라디에이터 패널) ...태양열을 모아 바닥의 냉난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와셔 ...공기를 물로 씻는 특수한 공조(空調) 설비. 수장고, 전시실 계통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중열 이용 ...바깥 공기의 공급에는 '어스 튜브 방식'을 채용하였습니다. 지하의 콘크리트 통풍관으로 유입된 바깥 공기를 관내의 공조기(空調機)와 더블 스킨 유리의 공기층으로 보냅니다.

부식을 방지하는 티탄 지붕

최신 기술로 역사를 지키고 계승한다

시설 이용 안내

전시실 이외에도 유용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식사, 쇼핑, 이벤트 참여, 정보수집
으로도 규슈국립박물관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과장
노다 도모코



문화상품점



1층 엔트런스

우편엽서와 문구를 비롯해 과자와 티셔츠, '규슈국립박물관 그림책'을 비롯한 서적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EL 092-918-8818

규슈국립박물관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일부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yuhaku-museum.shop/>

레스토랑, 야외 카페



레스토랑 이이노지

후쿠오카 명물 야메 차, 검은 털 일본소 등 '규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일식 레스토랑.

영업시간 11:00~17:00

(라스트오더 식사 16:00 음료 16:30)

TEL 092-555-3099



규박정원 족욕차실

레스토랑 '이이노지' 바로 옆, 족욕을 하면서 규슈의 명차와 디저트, 장어 주먹밥 등 가벼운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일본식 카페.

영업시간 11:00~17:00

(라스트오더 16:00)

TEL 092-555-3099



M카페

후쿠오카현의 전통공예품인 고이마리야키 도자기 커피잔과 그릇을 사용하여 후쿠오카 야메 차나 전시와 관련한 특별 메뉴를 제공합니다.

영업시간 10:00~17:00

(라스트오더 16:30)

TEL 092-408-5777

무료 시설

다실

'호만테이'와 '깃초안'이 있습니다. 호만테이는 일본문화를 체험하는 장소로서 다과회 등으로, 깃초안은 다도의 세계를 체험하는 장소로서 견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뮤지엄 홀

객석 수: 288석

넓이: 무대 부분 약 45.5m²(약 3.5m×약 13m)

무대 이외 약 240.5m²(약 18.5m×약 13m)

의자를 뺀 경우(사용 가능 면적)

약 208m²(약 16m×약 13m)

비고: 강연회나 전시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연수실 A, B

객석 수: 70석 정도(책상, 의자가 있는 상태)

넓이: 약 121.8m²(약 14m×약 8.7m)

비고: 강연회나 연수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한쪽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연수실 A, B를 연결해서 사용한 경우)



일본식 방(연수실 C)

객석 수: 다다미 26장

비고: 휴게 장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 가능)



<이용 방법>

각 시설의 이용 요금과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실 및 뮤지엄 홀은 이용 4개월 전 첫째 날부터 예약을 받으며, 연수실 A, B 및 일본식 방(연수실 C)은 이용 2개월 전 첫째 날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TEL 092-929-3602 FAX 092-929-3980 규슈국립박물관 교류과

그 외의 시설



산책로



무지개 터널



주차장



배리어프리(안내견용 화장실)

학교 대여 키트 <규파크> 이용 안내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관련 자료를 학교 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트렁크에 넣은 16종류의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 | |
|--|--|--|
| ☐ 조몬인(縄文人), 바다로 | ☐ 탄생!! 중국 문명 | ☐ 농경사회부터 국가형성까지 |
| ☐ 견당사 시대 | ☐ 이슬람의 기도 | ☐ 아지파 한국 |
| ☐ 아지파 오감 | ☐ 다양한 향신료 | ☐ 여러 가지 토기 |
| ☐ 여러 가지 청동기 | ☐ '토우 - 기도의 형태' | ☐ '도전! 감함무역' |
| ☐ 고려의 문화 | ☐ 다양한 곡물 | ☐ 몽골의 마두금(馬頭琴) |
| ☐ 시작하자! 쌀 농사 | | |

신청 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 상황을 확인한 후 사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TEL 092-929-3294 FAX 092-929-3980

규슈국립박물관 교류과



회원 제도 · 출판물

회원 제도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관람객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관람객 여러분이 박물관을 더욱 만끽하시는 것'을 목표로 국립박물관 4관(규슈·도쿄·교토·나라)과 연계한 특전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캠퍼스 멤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규슈국립박물관 일본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국립박물관 멤버스 패스 일반 2,500엔/학생 1,200엔 ※발행일부터 1년간 유효

특전

- 국립박물관(규슈·도쿄·교토·나라) 상설전 관람료 무료
- 도쿄 이외의 국립박물관(규슈·교토·나라) 특별전 할인 관람(단체요금)

규슈국립박물관 동우회 연회비: 7,500엔 ※발행일부터 1년간 유효

특전

- 국립박물관(규슈·도쿄·교토·나라) 상설전 관람료 무료
- 규슈국립박물관 특별전 관람료 무료(총 6회)
(규슈국립박물관 특별전 관람권 6장)
- 도쿄 이외의 다른 국립박물관(교토·나라) 특별전 할인 관람(단체요금)

캠퍼스 멤버스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2007년도부터 대학이나 전수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캠퍼스 멤버스>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 등과 박물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박물관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원기관의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며 교육 및 연구 면에서 협력함은 물론, 문화재 감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회비는 세금 포함	
	1년간	3년간
250명 미만	51,000엔	131,000엔
250명 이상 500명 미만	103,000엔	262,000엔
500명 이상 1,500명 미만	206,000엔	524,000엔
1,500명 이상 3,000명 미만	309,000엔	786,000엔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	411,000엔	1,048,000엔
5,000명 이상	514,000엔	1,310,000엔

규슈국립박물관 찬조회

규슈국립박물관의 운영 취지에 찬동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 기부 회원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수장품의 구입이나 교육보급활동 등 당관의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진흥에 널리 힘쓰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연회비** <단체> 프리미엄 회원: 500만엔 이상, 특별회원: 100만엔 이상, 유지회원: 20만엔
<개인> 프리미엄 회원: 100만엔, 특별회원: 20만엔, 유지회원: 5만엔
- 주요 특전** ※회원 종류에 따라 특전이 다릅니다.
•문화교류전 및 특별전 무료관람 •특별전 개최식 초대
•계간정보지 『아시아쥬』 발송 등

회원

2024년 4월 현재
단체(프리미엄 회원) 공익재단법인 규슈국립박물관진흥재단
단체(특별회원) 후쿠오카지조주식회사, 다자이후 덴만구 신사
단체(유지회원) 후지나카홀산주식회사,
세이히쓰카이, 세이코 주식회사,
국립대학법인 규슈대학, 유한회사 마에다상회,
지쿠시가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테레비니시넛,
일반사단법인 다자이후관광협회,
주식회사 니시닛폰신문사,
일본사진인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요미우리신문 서부본사,
일본칼미 주식회사, 아사히신문사,
미쓰루라도서출판 주식회사, 구루메운송 주식회사
주식회사 Selcon, 주식회사 단세이샤(외 2사)
개인(특별회원) 다카기 지즈코 님, 이시게 게이도 님
후로 야스마사 님, 에노모토 가즈히코 님
구로다 겐이치 님 (외 1명)
개인(유지회원) 다카기 세이우 님, 야마구치 고온 님
마츠모토 세키슈 님, 마츠키오 슈겐 님
고키 세이칸 님, 아라마키 시게히코 님
야부모토 슌이치 님, 야부모토 에이스케 님
사이타 도시미 님, 이시다 가쓰요 님
가마타 미치사다 님, 호리우치 히로시 님
야쓰기 다카유키 님, 호카마 가즈토모 님
도리야마 레이 님, 하야타 겐지 님
히사에다 요시오 님, 구로이시 마키코 님 (외 6명)
*입회순으로 게재



규슈국립박물관 멤버스 프리미엄 패스 일반 3,800엔/학생 2,500엔 ※발행일부터 1년간 유효

특전

- 국립박물관(규슈·도쿄·교토·나라) 상설전 관람료 무료
- 규슈국립박물관 특별전 관람료 무료
(총 4회까지, 그중 동일 전시는 2회까지, 5회 이후는 할인 관람(단체요금))
- 도쿄 이외의 다른 국립박물관(교토·나라) 특별전 할인 관람(단체요금)

특전

- 규슈국립박물관 문화교류전(상설전) 관람료 무료
- 규슈국립박물관 특별전 관람요금 할인
- 규슈국립박물관 멤버스 프리미엄 패스 할인 구입
- 간행물 무료 제공
- 박물관 실습, 출장 강의 등의 우대
- 시설 이용, 이벤트 참가의 우선권
- 레스토랑, 카페, 문화상품점 할인 등

캠퍼스 멤버스 가입 기관 <21기관> (2024년 4월 1일 현재)

<대학> 규슈산업대학, 규슈정보대학, 규슈대학, 구루메대학,
다이이치약과대학, 지쿠시여학원대학, 일본경제대학(후쿠오카 캠퍼스),
후쿠오카공업대학, 후쿠오카대학, 방송대학 후쿠오카 학습센터
<단기대학> 규슈산업대학 조형단기대학부, 후쿠오카공업대학 단기대학부,
후쿠오카여자단기대학

<전문학교> 구루메대학 의학부부속 임상감사전문학교, 후쿠오카영양사전문학교

<고등학교> 구루메대학부속 고등학교, 지쿠시여학원 고등학교,
지쿠시다이고등학교, 후쿠오카공업대학부속 조토고등학교,
후쿠오카대학부속 오호리고등학교, 후쿠오카대학부속 와카바고등학교

*각 기관별 일본어 음절순으로 게재

출판물

규슈국립박물관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출판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기요
<동풍서성(東風西聲)>
조사연구성과를 책자로 발행
(연 1회 발행)



계간정보지<아시아쥬>
특별전·문화교류전 소개를 중심
으로 한 홍보지(연 4회 발행)



특별전 도록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하는
특별전의 해설



특집전시 도록
문화교류전시실에서 개최하는
특집전시의 해설



<규슈국립박물관 그림책>



<베트남어 그림책>
에도 시대의 베트남과 일
본 간의 무역 상황을 그린
'바다 저편의 아주 먼 곳'
을 베트남어로 번역(현지
기관에 배포)

어린이들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당관 자
체 제작 그림책

시설 정보

기본정보

주소·연락처 우편번호 818-0118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이시자카 4-7-2
안내전화 050-5542-8600(오전 9시~오후 8시, 연중무휴, 일본어 전용)
www.kyuhaku.jp/ko/

개관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야간개관일은 오후 8시까지 개관(입장은 오후 7시 30분까지)
※야간개관은 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관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관, 다음날 휴관), 연말

문화교류전(상설전) 관람료 일반 700엔, 대학생 350엔
※장애인 수첩 등을 지참하신 분과 그 보호자 1명은 무료
※고등학교생 이하·18세 미만 및 만 70세 이상인 분은 무료
※특별전은 별도 요금

문화교류전(상설전) 무료관람일

국제박물관의 날(5월 18일, 단 휴관일인 경우는 다음날), 경로의 날,
문화의 날(유학생의 날로 하여 유학생은 무료),
가족의 날(11월 셋째 주 일요일,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오신 분 2명까지 무료. 한 가족당 2명까지)

주차요금

자 전 거	무 료
오 토 바 이	250엔/회
보 통 승 용 차 · 준 중 형 자 동 차	500엔/회
마 이 크 로 버 스	1,300엔/회
대 형 버 스	2,000엔/회

※장애인 수첩 등 제시 시 면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주차 공간

보 통 승 용 차	313대
버 스	9대

※주차장 이용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7시
(입차는 오후 4시 30분까지)
야간개관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입차는 오후 7시 30분까지)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과 함께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설개요

토지면적	(㎡)
159,844	
건물면적	
건축면적	14,623
연면적	30,675
내역	독법 / 9,300 현 / 5,780 공유 / 15,595
전시·수장면적	
전시면적	5,444
내역	독법 / 3,844 현 / 1,375 공유 / 225
수장면적	4,518
내역	독법 / 2,744 현 / 1,335 공유 / 439

수장품 (2024년 3월 31일 현재)

구분	총수	국보	중요문화재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규슈국립박물관	18,292	4	48
등록미술품 / 2 (총수에는 미포함)			
후쿠오카현립아시아문화교류센터	405	0	3

※규슈박물관 수장품 계산방법이 기관 내 타 박물관과 상이하여 2024년 3월 31일 계산방법을 개정했습니다.

기탁품 (2024년 3월 31일 현재)

구분	총수	국보	중요문화재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규슈국립박물관	1,275	1	13

입장객수

방문객수

연도	(명)
2005년도	1,280,314
2006년도	1,879,855
2007년도	1,386,388
2008년도	1,219,487
2009년도	1,739,503
2010년도	1,143,666
2011년도	884,633
2012년도	1,235,018
2013년도	893,154
2014년도	932,935
2015년도	1,024,008
2016년도	1,067,831
2017년도	842,577
2018년도	893,393
2019년도	829,655
2020년도	149,919
2021년도	236,468
2022년도	535,611
2023년도	648,701

문화교류전(상설전) 입장객수

연도	(명)
2005년도	831,180
2006년도	1,094,386
2007년도	762,809
2008년도	589,777
2009년도	760,255
2010년도	422,843
2011년도	358,366
2012년도	460,525
2013년도	349,848
2014년도	357,362
2015년도	412,621
2016년도	393,590
2017년도	350,848
2018년도	349,114
2019년도	348,563
2020년도	81,230
2021년도	104,898
2022년도	239,282
2023년도	287,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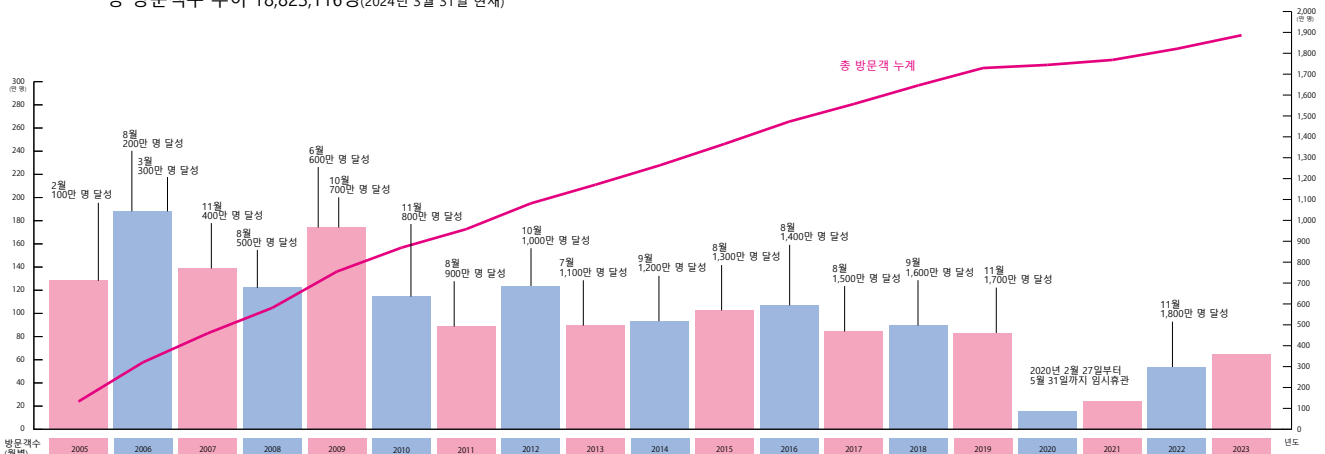
특별전 입장객수

연도	(명)
2005년도	683,211
2006년도	691,880
2007년도	512,856
2008년도	515,495
2009년도	1,055,043
2010년도	543,489
2011년도	354,228
2012년도	646,511
2013년도	377,755
2014년도	447,301
2015년도	471,507
2016년도	528,878
2017년도	317,421
2018년도	351,277
2019년도	325,714
2020년도	50,432
2021년도	108,255
2022년도	283,918
2023년도	242,311

※문화교류전, 특별전 외 관내 무료 시설 방문객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임시 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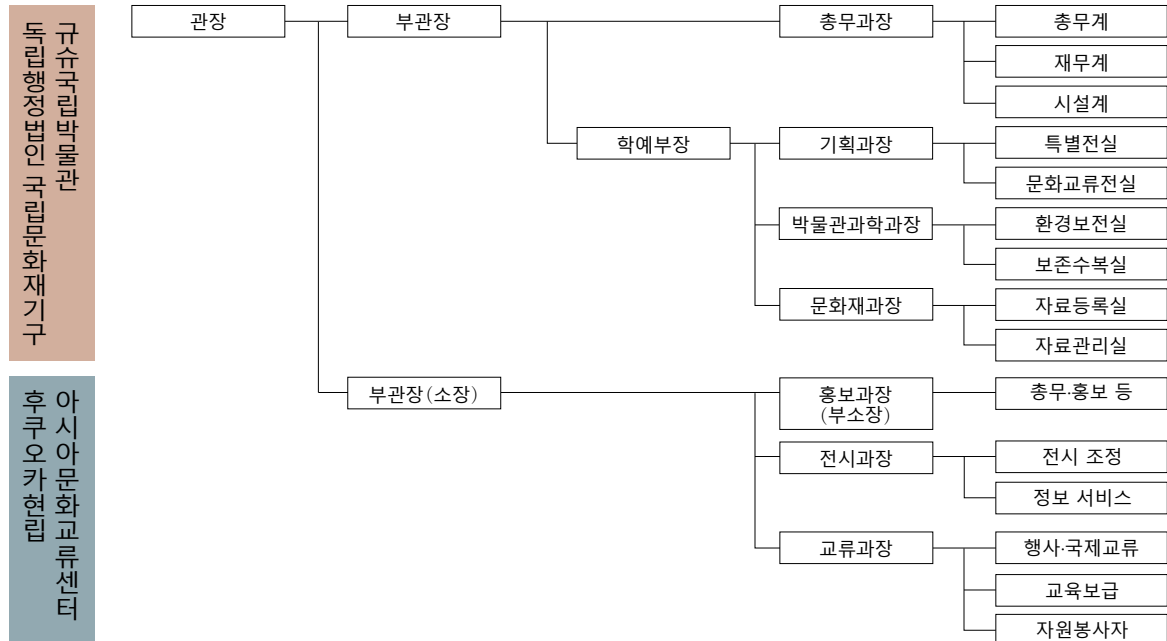
총 방문객수 추이 18,823,116명(2024년 3월 31일 현재)



조직

규슈국립박물관은 국가(독립행정법인)와 후쿠오카현이 연계 및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형태는 문화청이 설치한 <신구상 박물관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가 정리한 기본 구상의 하나인 '국가와 박물관이 설치되는 지역이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여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 및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박물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규슈국립박물관은 주로 문화재 관리, 전시, 박물관과학사업을, 후쿠오카현립아시아문화교류센터는 홍보, 교류, 교육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수 (상근직) (2024년 4월 1일 현재) (명)

구분	직원수	일반직	연구직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규슈국립박물관	28	10	18
후쿠오카현립아시아문화교류센터	19	11	8

연혁

1994년 6월	문화청이 '신구상 박물관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
1996년 3월	문화청이 신구상 박물관의 설치 후보지를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로 결정. 명칭을 '규슈국립박물관(가칭)'으로 함.
1997년 6월	위원회가 '규슈국립박물관(가칭) 기본 구상'을 책정.
1999년 3월 6월	위원회가 문화청 장관에게 '규슈국립박물관(가칭) 기본 계획'을 답신. 문화청 및 후쿠오카현이 합동으로 규슈국립박물관(가칭)의 설립 준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취급하는 '규슈국립박물관(가칭) 설립 준비 전문가 회의' (이하 '전문가 회의'라고 함)를 설치.
2000년 3월 4월	전문가 회의가 '규슈국립박물관(가칭) 상설전시 계획'을 책정. '규슈국립박물관(가칭) 건축 기본 설계'를 완료.
2001년 3월 4월	문화청과 후쿠오카현이 '건축 실시 설계' 및 '전시 기본 설계'를 완료. 도쿄·교토·나라의 국립박물관을 통합하고 독립행정법인 국립박물관(이하 '독법'이라고 함)이 발족. 독법 내에 '규슈국립박물관(가칭) 설립 준비실'을 설치.
2002년 3월 4월	문화청과 후쿠오카현이 공동으로 '건설 공사(3년 계획의 제1년차)'에 착수. 규슈국립박물관(가칭) 건설 공사 기공식(2002년 4월 10일)
2003년 4월	독법 및 후쿠오카현이 '전시 공사(2년 계획의 제1년차)'에 착수.
2004년 3월 10월	규슈국립박물관(가칭) 건설 본체 준공. (건물 완성) 문화청, 독법 및 후쿠오카현이 정식 명칭을 '규슈국립박물관'으로 발표.
2005년 3월 4월 10월	규슈국립박물관 전시 공사(2년 계획의 제2년차)가 완료. 독법이 규슈국립박물관을 설치. 또한, 후쿠오카현이 후쿠오카현립아시아문화교류센터를 설치. 개관 기념식전(2005년 10월 15일)이 개최되고 다음날 16일부터 일반 공개 시작.
2007년 4월	독법과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를 통합하고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가 설치됨. 이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규슈국립박물관으로 변경.
2008년 8월 12월	방문객 500만 명 달성. (2008년 8월 14일) 규슈국립박물관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2008년 12월 13일)
2012년 10월	방문객 1,000만 명 달성. (2012년 10월 9일)
2015년 10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개관 10주년 기념식전을 개최. (2015년 10월 17일)
2017년 8월	방문객 1,500만명 달성. (2017년 8월 19일)
2020년 10월	개관 15주년을 맞이함.

■찾아오시는 길



■교통안내

니시테쓰전철 ○니시테쓰 후쿠오카(덴진)역에서 덴진 오무타선(특급 약 16분/급행 약 18분) 탑승 후 니시테쓰 후쓰카이치역에서 다자이후선(약 5분)으로 환승. 니시테쓰 다자이후역 하차 후 도보 약 10분
※특급/급행 추가 요금 없음.

JR ○JR하카타역에서 가고시마본선(쾌속 약 15분) 탑승 후 JR후쓰카이치역에서 하차. 니시테쓰 후쓰카이치역으로 이동하여(도보 약 12분/버스 약 6분) 다자이후선으로 환승.

자동차 ○규슈자동차도로/다자이후IC 또는 지쿠시노 IC에서 다카오교차점 경유로 약 20분
○후쿠오카도시고속/미즈키출구에서 다카오교차점 경유로 약 20분

택시 이용 ○JR 후쓰카이치역에서 약 15분·후쿠오카 공항에서 약 30분

니시테쓰 버스 ○하카타 버스터미널(1층 11번 타는 곳 다자이후행)에서 출발하여 니시테쓰 다자이후역 하차(소요시간 약 40분), 도보 약 10분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터미널 경유



■주변환경



■다자이후 덴만구(天満宮) 신사

학문의 신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시는 덴만구 신사 중 하나입니다. 새해가 되면 일본 각지에서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현재 교토의 기타노 덴만구 신사와 함께 일본 전국 덴만구 신사의 총본사이자,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다자이후 정청 터

다자이후 정청 터는 고대 '면 지방의 조정'으로 불리며 7세기 후반 규슈를 통치하는 관청이 세워진 곳입니다. 당시에는 장려한 건축물이 줄지어 있었는데, 현재는 붉은 돌판에 대형 조석(일부 복제품)을 놓아 당시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간제온지 절(觀世音寺)

규슈를 대표하는 오래된 사찰로, 도다이 절 및 시모쓰케야쿠시지 절과 함께 '천하 삼계단'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절 내에는 헤이안시대부터 가마쿠라시대에 걸쳐 제작된 불상(중요문화재) 등이 안치되어 있고, 경내에 있는 범종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 중 하나로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고산(神護山) 고묘젠지 절(光明禪寺)

스가와라 가문에서 태어난 데쓰쿠 엔신 스님이 창건한 임제종 도후쿠지파에 속하는 선종 사찰입니다. 규슈에서 유일하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산수를 표현하는 가래산수(枯山水)식의 이끼 정원을 지닌 사찰입니다. 니시테쓰 다자이후역에서 이어지는 산책로 '고쿠하쿠길(서측 진입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